

남해안은 한반도의 희망이다

-Sun Belt 프로젝트와 남해안 발전전략-

South Coast is The Hope of Korean Peninsula

-Sun Belt Project and South Coast Development Strategy-

우주호¹

Woo, Ju-Ho¹

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남해안 프로젝트는 이미 많은 발전구상과 전략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과잉개발과 중복 개발, 상호 연계성을 상실한 편중과 무모할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난무하는 개발계획과 황당한 과잉 비전 제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하고 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발전구상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목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목포는新安郡을 중심으로 한 흑산도, 가거도, 우이도, 비금도, 장산도 등의 인근 섬과 섬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다. 여수와 고흥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를 두 축으로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거문도와 백도는 자연경관도 수려하며 거문도 등대와 영국군 주둔지와 포대 등은 역사·문화자원으로 훌륭하며 돌산도의 향일암과 나로도의 항공우주기지는 좋은 문화관광자원이다. 또한, 한려수도와 다도해의 남해안축제는 크루즈와 해양스포츠와 어업과 문화산업이 결합하여, 부산-마산-통영-삼천포-여수-완도-목포를 연결하는 왕복 크루즈와 순환 정기관광유람선의 축제관광과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의 역사적장소를 축제무대화하고, 상주의 해수욕장과 금산을 돌산도의 향일암과 연결한다면 일출과 일몰의 명소가 될 것이다.

핵심어 : 남해안 프로젝트, Sun Belt, 남해안 발전전략, 여수, 문화관광자원

Abstract

Currently, in our southern coast project, many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es are already rampant and its degree is excessive, overlapped, biased and reckless losing the interconnectedness.

In this article, to examine the rampant development plans and the suggestion of the absurd and excessive vision, and to suggest a sustainable and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 and strategy, focusing on the ecosystem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the importance of Mokpo was emphasized. Mokpo is the center of the network connecting the neighboring islands such as Heuksan Island, Wooyi Island, Bigeum Island, Jangsan Island, etc., around Shinan-gun. Yeosu and Goheung consists of beautiful islands with the two access to Yeosu peninsula and Goheung peninsula, and particularly, Geomun Island and Baek Islands have beautiful natural landscapes, the light house and the British military camp and battery, etc. In Geomun

¹ Research Institute for Land and Environment
e-mail : apollos98@yahoo.ac.kr

Received(March 16.2014), Review (March 30.2014), Accepted(June 30.2014)

Island great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can be found. Hyangil Buddhist Temple in Dolsan Island and the Aerospace Base in Naro Island have good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s. In addition, Hanryeosudo and Southern Coast Festival, combined with cruises, marine sports, fishery and cultural industry, and if they are linked with the festival tourism with the regular tourist round-trip cruise connecting Busan, Masan, Tongyeong, Samcheonpo, Yeosu, Wando, and Mokpo, the synergic effects are expected. In addition, if the historical sites of Admiral Yi Sun-Shin and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re to be made as a festival venue and the beach in Sangju and Geumsan are connected to Hyangil Buddhist Temple in Dolsan Island, they will become famous places, and are the said islands are good spots for sunrise and sunset views.

Keyword : southern coast project, Sun Belt, southern coast development plans, Yeosu, cultural resources

1. 들어가면서

세계의 주요 국가는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해양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수도권 중심의 내륙개발에 치중해왔으나, 제 4차 국토개발계획에서 해양지향적 국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U축의 개발축을 설정하여 환동해권(環東海圈), 환황해권(環黃海圈), 환남해권(環太平洋圈)의 해양개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경부축 중심의 중앙집권적 내륙지향형의 국토공간구조에서 세계화 시대에 수도권과 상생하는 이극체제의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해안의 개발과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남해안을 부산광역시와 경남과 전남과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자체로 한정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목포, 영광, 신안, 무안, 영암, 해남, 진도 등 전남 목포권의 서해안 다도해문화권,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강진, 장흥, 완도 등 여수에서 완도군까지의 남해안 다도해문화권, 진주, 하동, 사천, 남해군의 한려수도 서부문화권, 통영, 거제, 고성, 한려수도 동부문화권, 부산, 양산, 김해, 진해, 창원, 마산의 낙동강 하구문화권, 광주광역시와 담양, 화순, 나주, 곡성, 장성의 무등산문화권, 남원, 구례, 함양, 산청, 하동의 지리산문화권, 거창, 합천, 의령, 함안, 창녕, 밀양의 중부 경남문화권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1][2].

우선 남해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수도권 발전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국토의 변방이고,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내내 왜구의 침탈로부터 노출되어 언제 재산과 목숨을 유린당할지 모를 삶의 최전선에 내몰려있다. 고려 말 왜구 침략의 통로였고, 임진왜란 때 수군의 전초기지였다. 일제 강점기 이래 부산, 마산, 울산, 삼천포, 여수, 목포 등 항구도시는 개항의 전초기지였고, 철로가 내륙의 쌀과 광물 등 지하자원을 수탈하는 통로로 발전했다. 특히 부산, 마산, 목포는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로를 통해, 또는 철로를 통해 각종 제조업과 가공업이 발달했다. 남해안 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특화산업과 지역성을 갖춘 문화·관광산업을 살려야 한다. 특히 자연경관과 생태와 역사·문화

의 특징을 살린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개발이 요구된다[1].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심해의 유전개발 붐이 일고, 해저 유전과 광물자원의 개발이 EEZ 경계선의 국가 간 겹치고 맞물리면서 치열한 각축이 계속되고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유럽, 북미, 호주, 일본은 연안역의 워터프런트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해양성 리조트와 마리나 개발로 다양한 해양 레포츠의 거점역할을 연안역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해양관광과 해양여건의 시대적 흐름은 12,000km의 해안선과 3,200여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가 해양관광산업에 돌입하게 했다. 남해안 관광벨트와 남해안 해양산업벨트는 맞물려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계획은 일명 "Rainbow Coast 21" 동북아의 해양복합리조트 지역을 창출하는 것이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계획대상지의 위치는 부산광역시-경상남도-전라남도 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의 광역시 1곳, 10개의 시, 12개의 군을 포함하는 자치단체가 해당한다. 계획면적은 총 14,000km² 이지만, 행정구역 총면적은 11,267km² 에 달한다.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기간이 2000년에서 2011년까지이다[3].

워터프런트(Waterfront)란 수변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여 생산기반이 약해진 도시 임해부, 또는 항만부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지역진흥과 환경정비를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지역재개발과 도시구조 재구축을 말한다. 워터프런트 재개발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많은 도시가 시도한 수변지역의 진흥 또는 수변도시 활성화의 기법이다. 특히 미국에서 계획된 워터프런트 재개발 프로젝트는 '물의 마법(Water Magic)'이란 유행어처럼 해양에 면한 항만도시에서 하천유역의 수변도시와 호수의 수변도시마다 모두 워터프런트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워터프런트의 효용성에는 물과 공간효용의 이수성(利水性)과 쾌적성의 친수성(親水性)이다. 워터프런트의 오락성은 물과 빛, 바람과 나뭇잎, 도시의 스카이라인, 흰 돛의 요트, 왕래하는 크고 작은 배 등 실로 다양한 변화의 역동성으로 관광의 대상이 된다[4].

남해안 프로젝트는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 등의 목표 중심의 서남해안 개발전략과, 부산신항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과 광양경제자유구역 등의 허브항만개발전략과, 부산북항 재개발 전략과 여수EXPO 개최 전략, 통영-거제의 조선산업과 해양-관광개발, 진주-사천의 항공산업과 관광산업개발, 창원-마산의 기계산업과 중공업과 환경·문화도시 전략, 광주의 문화도시 비전 등 이미 많은 발전구상과 전략이 난무하고 있다. 과잉개발과 중복 개발, 상호 연계성을 상실한 편중과 무모할 정도의 난무하는 개발계획과 황당한 과잉 비전 제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하고 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발전구상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4-6].

2 목표와 서해안 다도해 해양문화권

2.1 목포권의 서해안 다도해문화권

2.1.1 서해안 다도해문화권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와 관광자원

목포, 영광, 신안, 무안, 영암, 해남, 진도 등 전남 목포권의 서해안 다도해문화권은 목포시를 중심으로 서해안 다도해의 신안군 흑산면의 대흑산도, 가거도(소흑산도)와 흥도 등은 자연경관으로서나 역사·문화유산에서 빼어난 관광자원이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장대’라는 어부를 만나 불후의 수산서(水産書)인 ‘자산어보’를 남겼다. 흑산도 파시와 흑산도의 정약전의 유배와 ‘자산어보(茲山魚譜)’는 중국의 해상통로로서도 중요한 역사·문화의 유산이다. 칠산도 조기와 법성포의 조창과 영광굴비의 역사는 중요하다. 동진 마라난타의 백제불교 전래지로서, 원불교 성지, 영광원자력발전소로서의 영광군은 종교문화와 법성포구의 어촌문화 관광지로 개발의 여지가 크다. 영암은 월출산과 구림마을의 전통과 왕인박사와 도갑사 등 대불공단과 영암호, 금호호 등 매립과 해양리조트 등 다도해 섬들이 파도를 잠재우는 만입들이 자원개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다[5].

해남은 녹우당과 고산, 윤선도, 공재 윤두서 등 해남윤씨의 시문과 회화에 띄어난 종가들과 토말의 땅끝마을은 두륜산의 대둔사와 달마산의 미항사는 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이 풍성한 관광자원이다. 특히 대둔사는 서산대사의 금란가사와 발우 등을 모신 포충사가 있는 임진왜란 승병의 최전선으로서, 또한 초의선사의 차문화의 본거지인 일지암 등이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해남 전라우수영의 울독목(鳴梁)은 건너편 진도의 벽파잔과 마주하는 임진왜란 이순신장군의 3대첩 전승지의 하나다.

진도는 옛날 옥주(沃州)라 불리는 고려말 삼별초 항몽유적지의 하나인 용장산성과 남도석성 등 역사유적이 풍부하다. 진도팔경은 1경-울독목 해안, 2경-신비의 바닷길 회동(回洞), 3경-관매도 팔경, 4경-기암절벽의 조도 6군도, 5경-남도석성, 6경-남화(南畵)의 본거지 운림산방, 7경- 용장산성, 8경-금굴기암 등이다. 진도군 의신면 첨찰산(尖察山) 서쪽아래 쌍계사(雙溪寺)아래 운림산방(雲林山房)은 조선조 말 소치(小痴) 허련(許鍊)의 화실 당호이다. 손자 남농(南農) 허건(許健), 의제(毅齊) 허백련(許百鍊) 등으로 이어져 한국남화의 본거지가 되었다. 진도군은 씻김굿, 남도들노래, 만가(挽歌), 닳배노래, 진도북놀이, 다시래기, 진도아리랑 등 전통민속과 중요무형문화재가 풍부한 예향(藝鄉)이다[7].

진도 영등축제는 음력 3월 대사리 때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2.8km의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이로 해저의 사구(砂丘)가 40여m의 폭으로 물위로 드러나 바닷길을 이루는데,

이것을 ‘영등살’이라 하며, 1975년 주한 프랑스대사 ‘피에르랑디’씨가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 감탄하여 프랑스 신문에 기고한 것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진도 영등축제는 바닷길이 열리기 전 상여 또는 농악놀이로 관광객과 합일의 장을 이루는 “영등살 놀이”와 ‘뽕할머니상을 담은 촛불과 상 주변에 연등을 켜 기원하는 “뽕할머니 축원제”등 진도 토속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진도개 모기자랑, 치어방생법회, 해상선박 퍼레이드, 진도 특산명물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7].

2.1.2 서해안 다도해문화권의 발전전략

서해안 다도해의 빼어난 자연, 역사, 문화, 관광자원은 진도와 해남, 신안군의 흑산도와 가거도, 홍도 등 목포에서 상당히 떨어진 먼 곳에 산재해 있다. 목포는 자연, 문화 관광자원의 거점지역으로 무안국제공항, 여객과 화물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등 해양·항만인프라가 요구된다. 또한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해양박물관 등과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의 과잉 또는 중복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서해안 발전 구상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2 목포의 자연과 역사

목포는 영산강이 바다와 만나는 길목에 자리 잡은 요충지인데, 하구언 덕분에 바다는 강을 잃고, 강은 바다를 잃어 영망이 돼버렸다. 하구언 위 전남도청이 새로 선 ‘남약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일제 초기에 낙동강의 부산, 압록강의 신의주, 대동강의 진남포, 한강의 인천, 금강의 군산, 그리고 영산강에 목포가 조선의 자원수탈을 위한 식민지 교두보로서 건설되었다. 개항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집중되었으니, 이는 바다를 통해 들어 온 해양세력들이 젖줄인 강을 따라서 식민 내륙까지 뻗어가려는 세계사적, 일반적 경로를 잘 보여준다. 1897년 7월 4일, 조선정부는 각국 사신 앞으로 동년 10월 1일을 기해 목포와 진남포 두 항구를 외국통상을 위하여 개항하고 외국인 거주를 허가하는 칙령을 통보한다.

목포는 발전을 거듭하여 전남의 현관이요 물산집합의 중심지로 조선에서는 제 3위를 점할 만한 중요 항이자 상업의 요지로 자리 잡는다. 1930년대에 인구 6만을 돌파한다. 목포시는 무안현의 이로면과 일로면의 위치에, 2/3가 바다의 매립에 의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살기 편하도록 도시를 꾸몄다. 정거장, 관청, 은행, 학교, 시장, 그밖에 근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기관을 자신들과 가깝고 편리한 곳에 세웠다. 상하수도, 도로포장, 교통통신, 전기, 가스, 보건, 위생 등도 예외 없이 일본인 중심으로 설치한다. 일인들 거리는 짜임새 있고 깨끗하고 편리하였다. 반면에 조선인

거리는 무참하기 그지없었다. 고하도 선착장에 두 기의 비석이 있다. 하나는 이순신이 명량대첩 후 1597년 10월 29일 고하도로 진을 옮겨 군량미를 비축하고 전력을 재정비하였다가 이듬해 1598년 2월 17일 고금도로 진을 옮길 때까지 108일 동안의 전라우수영 진영의 터다. 1722년 통제사 오중주와 충무공의 5대손 이봉상이 세운 ‘이 충무공 고하도 유적비’다. 또 하나는 조선 육지면(陸地棉) 발상지를 나타내는 비석이다. 1897년 대한제국 정부 고관 이윤용(李允用)이 고하도 땅을 매입하여 일본인에게 30년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토지수탈에 협조한다. 그리하여 1899년 일본 영사가 고하도에서 미국산 육지면을 시험재배하기 시작하였고, 재배에 성공하면서 전국적으로 육지면이 퍼지게 된다. 수확기에는 목포항이 온통 흰 목화로 뒤덮였으니 쌀과 더불어 남도수탈의 상징이었다[8].

2.3. 서해안 다도해문화권의 발전전략

2.3.1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J-Project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를 꿈꾼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영암군 미암면 일대의 3,200만 평에 주거기능, 외국계 병원, 학교, 관광레저, 전원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J-프로젝트란 영암, 해남 일대 3,032만 평에 국내 최대 관광레저 단지과 기업도시를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국책 프로젝트이다. 이 단지 안에서 쉬면서 즐기는 별장형의 미래형 복합 정주도시이자 국제적인 관광위락지가 50만 평에 들어서게 된다. J-프로젝트의 주요 계획시설로는 PGA골프코스, 카지노, 가족위락시설, 가족호텔, 골프타운, 엔터테인먼트 플라자, 컨벤션센터, 마리나 등이 328만 평에 들어서게 된다.

2.3.2 S-프로젝트(서남해안 국제기업도시)

S-프로젝트(서남해안 국제기업도시)은 전남 목포, 무안, 영암, 해남 등 3개 거점에 9,000만 평에 500억 달러(약 50조원) 투자로 15-20년간의 대 역사다. 전남 무안은 항공물류단지, 컨벤션종합센터를, 목포는 의료 및 생명공학 연구단지를, 영암과 해남은 테마 리조트 및 영상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서남해안 지역의 섬과 해안 일대를 개발해 관광·레저단지를 만들고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물류·유통단지,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해, 이 지역을 인구 250만 명 규모의 동북아 관광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S-프로젝트는 전남 영암 간척지 3,000만 평과 해남 매립지 6,000만 평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물류단지, 지식산업형 기업도시 등을 건설하는 구상이다. 단지조성에는 국내 3-4개 대기업과 싱가포르투자청 외에 한국관광공사, 농촌공사, 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관련 공기업들도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서남해안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건교부, 재경부, 농림부 및 전남도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을 곧 설치할 계획이다[9].

South-west Coast Development(서남해안 개발계획)인, S-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자본이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싱가포르의 영어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신안에서 해남까지가 개발대상이다. S-프로젝트는 서남해안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즉 J-프로젝트 지역을 포함한 9,000만 평에 대한 싱가포르 자본의 투자개발 계획을 말한다. J-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싱가포르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물류허브기능을 담당하는 공항과 항만이다. 싱가포르 정부와 싱가포르 항공은 우리 정부에 무안국제공항 운영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South-west Coast Development(서남해안 개발계획)은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사업구상에 착수해, 2004년 11월에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했다.

2.3.3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의 과제

첫째, 개발사업 중복에 따른 특별법 제정의 악영향이 우려된 데다 이들 대규모 사업에 타당성 분석에서부터 재원대책, 사전조율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S-프로젝트 초기단계에 행담도 사건이 터져 전남의 최대 현안사업인 J-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민자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등 간접적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셋째, 전남도가 영암, 해남 일대에 2020년까지 35조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지인 서남해안 관광개발사업(J-프로젝트)과 부산시, 경남, 전남이 공동추진중인 “남해안 발전특별법”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구심이 더해가고 있다. 또한 남해안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추진 중인 특별법만도 6-7개에 달해 ‘특별법 천국’으로 불린다. 개별법의 중복에 따른 특별법 제정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넷째, 추진주체인 ‘서남해안 포럼’이 민간단체로 사업성과나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 정부나 국회, 여야 차원에서 개발사업이 성립돼,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이 요구된다.

3. 여수와 남해안 다도해문화권

3.1 남해안 다도해문화권의 자연문화유산과 관광자원

3.1.1 여수, 광양, 순천, 보성, 고흥의 자연과 역사문화유산

여수와 고흥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를 두 축으로 돌산도, 금오도, 거문도, 백도, 외나로도, 내나로도, 거금도, 소록도, 금당도 등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여수시 삼산면의 거문도와 백도는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1985년 영국해군 900명이 20개월 동안의 거문도 점령으로 등대와 영국군 주둔지와 포대 등은 역사·문화자원으로 훌륭하다. 돌산도의 항일암과 나로도의 항공우주기지는 소록도의 나환자 시설과 병원 등과 함께 문화관광자원이다[6].

(1) 여수

국보 304호인 여수의 진남관은 1598년 전라좌수영 객사로 건립한 진남관은 정면 15칸, 측면 5칸의 전통 목조건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다. 1599년(선조 32년) 12월에 통제사 겸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시언(李時言)이 정유재란으로 불타버린 진해루(鎭海樓) 터에 다시 세운 75칸의 거대한 객사이다. 건물면적은 240평이며 기둥이 68개로 민흘림 수법인데, 현존하는 지방관아 건물로는 최대규모이다. 그 인근에 ‘충무공 대첩비’가 있다. 흥국사는 보물 563호인 홍교(紅橋)와 보물 396호인 정면 3칸의 팔작지붕인 대웅전이 있다. 흥국사에는 두 승장인 자운(慈雲)과 옥형(玉炯)이며 휘하에 300여 승군(僧軍)이 수군에 종사했다.

여수시 삼일면과 쌍봉면 일대 1,334만 평에 여천석유화학단지를 1966에 시작해 1979년에 완공했다. 정유공장은 석유를 분해해서 액화천연가스, 휘발유, 나프타, 등유, 디젤유, 병커 중유, 아스팔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휘발성이 강한 나프타를 기본 원료로 해서 여러 제품의 재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분해 중유 그리고 비료를 만든다. 1973년 우리나라 비료의 44%를 생산하는 호남비료인 남해화학이과 대성 메탄올 공장, 럭키계열의 공장이 들어서고, 1976년에는 호남에틸렌 공장, 호남석유화학, 한양화학, 한국 다우케미칼 등 1981년까지 대규모 공장 15개가 들어섰다[10].

(2) 광양

광양 시는 백운산과 섬진강과 광양만으로 틀이 잡힌다. 광양 백운산은 1,218m로 풍수지리의 원조격인 도선이 지은 옥룡사와 고로쇠나무로 유명하다. 1985년에 시작하여 1988년에 광양만의 태인도와 금호도를 메워 제1기 광양제철이 지어졌고, 광양컨테이너 항만이 들어섰다. 광양항은 1966년 광양제철 1기 준공과 함께 기존 삼일항을 흡수하여 광양항으로 개항하였으나, 1991년 10월 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광양항은 묘도를 중심으로 북쪽은 광양항구와 남쪽은 여수항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광양항구는 광양제철소에서 필요한 철광석 원료, 유연탄 및 철강제품을 처리하는 제철소부두와 컨테이너부두가 있다. 광양항은 수심 15-18m의 항로와 광활한 배후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부두가

만으로 형성되어 있어 방파제 없이도 정온수역을 유지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 환적화물의 거점 항으로 최적의 위치에 놓여있고, 세계 제일의 포스코 광양 제철소와 대규모 여수석유화학단지, 울촌 산업단지가 산업벨트로 형성되어 있다.

광양은 세계 초일류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2011년까지 33선석으로 연간 933만 TEU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게 될 광양항과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588만 평의 부지에 6,300여 명의 종업원들과 연간 1,750만 톤 생산능력을 갖춘 제철소로 열연코일, 냉연코일 등을 용광로 공법에서 최근 파이넥스(Finex) 방식으로 생산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은 전남 광양·여수·순천과 경남 하동군 일원 2,733만 평으로, 동북아 물류, 신산업, 관광허브 구축이 목표이다.

(3) 순천

순천은 백제의 감평군에서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년)에 승평군으로, 고려 충선왕 1년(1309년)에 승주목이 되고 1310년에 순천부가 되었다. 조선시대 태종 13년(1413년)에는 순천도호부에, 1895년에 순천군으로, 1949년에 순천시로 바뀌었다가 1995년에 승주군과 도·농 통합해 순천시가 되었다. 순천은 조계산의 송광사와 선암사를 서와 동으로 안고 있는 승주군과 주암댐에서 상사댐으로 순천, 여수의 생·공용수를 1일 26만 톤을 보내고, 광주, 목포 등 영산강권역으로 유역 변경을 해서 1일 26만 톤을 보낸다.

천년고찰 선암사는 보물 400호인 쌍무지개 다리인 승선교와 강선루와 만세루라는 강당이 있다. 16국사를 배출한 삼보사찰의 하나인 승보사찰 송광사는 고려고종제서, 목조삼존불감, 16국사를 모신 국사전 등 국보 3점이 있다. 절 입구의 삼청교와 우화각은 맑은 물 위에 비추는 풍경은 빼어나다.

순천만은 800만 평의 광활한 갯벌과 70만 평에 이르는 갈대밭을 간직하고 있다. 봄에는 안개, 여름에는 순천만의 별미인 짬뽕어와 갯벌, 가을에는 칠면조와 갈대, 겨울에는 흑두루미를 비롯해 200여종의 철새가 진풍경을 이룬다. 사시사철 매력을 가진 자연생태관광의 보고인 순천만은 2006년 1월 연안습지 최초로 국제 습지조약인 람사협약에 등록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에서 안개나루로 표현됐던 순천만 다대포구에 새로이 생긴 무진교를 건너면 사람 키만큼 자라난 갈대숲길이 펼쳐진다. 고요한 갈대숲길을 산책하다 해가 저물 무렵이면 순천만의 동쪽 고틀머리에 자리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여촌체험마을'인 와온마을을 찾으면 드넓은 갯벌의 캔버스를 주홍색 석양이 붉게 물들이는 장관을 만날 수 있다.

(4) 보성

보성군은 섬진강의 제 1지류인 보성강에 주암댐이 들어서 수물면적이 많고 보성은 녹차와 서편제 판소리가 엮어지면 소리와 음료와 음식의 축제가 바람직하다. 보물 304호인 별교 홍교와 문덕면 대원사의 대원연지의 연꽃축제와 봄의 벚꽃터널은 운치가 있다. 별교는 보성읍보다 인구가 2배가 되는 일제시대에 고흥과 낙안, 순천, 조성 등 식량과 자원수탈의 통로가 되면서 상업중심지로 성장했다. 고흥반도와 장흥반도의 사이의 득량만은 아늑한 들판이 펼쳐지는 보성의 곡창이다.

보성의 강골마을은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에 건축한 양반과 부농의 전통마을이다. 득량만 바닷가에 가까운 곳인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에 강골마을이 있다. 보성은 <서편제>를 떠올리는 곳으로, 오늘날 조상현, 성장순을 길러낸 송계(松溪) 정응민 선생이 보성군 회천면 도강마을 태생이고, 소리꾼 박유전은 보성읍 대야리 강산마을이 고향으로, '보성소리축제'의 근원인 것이다. 1937년 완공된 득량만 방조제로 예당마을은 너른 평야로 보성군을 먹여 살린다. 부근 회천면에 1940년 일제 때 조성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인 '보성다원농장'은 '보성녹차'로 '보성다향제'의 근원인 것이다. 보성읍의 예동마을과 울어면의 참샘마을 등 전통마을과 전통가옥이 보성에는 산재해 있다. 보성에는 독립운동의 주역인 대중교의 나철, 서재필의 생가터와 백범 김구의 거주지가 있어,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별교와 더불어 역사탐방의 현장이 소재한다. 판소리 서편제와 보성 녹차의 문화자원은 남도의 들과 바다를 배경으로 보성의 강골마을을 홈스테이의 거점전통마을로 발전시켜 먹거리와 전통춤과 판소리의 앙상블로 융화시켜, 영호남 관광과 축제의 메카로 조성하는 전략적 시도를 해봄직하다.

(5) 고흥

고흥반도는 목이 잘록한 반도가 달려 있는 모양으로 보성의 별교에서 내려가면 폭 2km, 높이 100의 지협이 잘록하게 놓여있다. 최고봉이 609m인 팔영산이 있고 금삼면의 거금도와 봉래면의 나로도 등 섬이 여럿이 있다. 시인 한 하운의 '전라도길'과 '보리피리' 등에 문둥이의 애끓는 아픔이 있다. 도양읍 녹동 건너 1km 지점에 소록도가 있는 데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6년에 터가 닦여 1940년 4월 1일에 완공되었다. 보건사회부에 딸린 나병환자 갱생원에는 국립나병원과 서양식 별장 같은 9동의 집과 기독교교회가 있다.

나로도도 섬이 둘 곧 외나로도도 내나로도도 이루어져 있는데, 외나로도 서쪽 고틀머리인 축정마을에 어업전진기지인 나로도항이 있다. 나로도항은 서북쪽에 사양도가, 남서쪽에 애도가 방파제 구실을 하며 놓여있고, 가까운 바다에는 새우, 삼치, 오징어 같은 바다고기가 많아 어항으로서 좋은 조건이다.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는 고흥군 봉래면 하반마을에 일원 150만 평에 들어선다. 사업비 3,000여

억 원이 투입된다. 발사 통제동과 로켓 추적동 등 위성과 로켓발사에 필요한 13개 동의 건물이 완공됐다. 매립지 일부에 경비행기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갖춘 항공성능시험센터가 지어졌다. 고흥군은 4년 전부터 지역축제인 ‘유자축제’를 없애고 대신에 ‘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하고, 고흥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3.1.2 완도, 강진, 장흥의 자연과 역사·문화자원

(1) 완도군과 보길도

완도는 김이나 미역 같은 양식업으로 떼돈을 벌었다. 1896년에 처음으로 완도군은 군이 되었다. 고금도는 전라우수영이 임진왜란 직후 자리했고, 지금 강진군 마량면과 대교가 연결되었으나 그 건너 마량은 제주의 진상품인 말을 배로 싣어 나르던 곳이었다. 완도는 통일신라 말기에 장보고가 청해진에 본거지를 정한 그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보고는 신라 문성왕의 아내로 삼게 하려 하다가 군신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조정에서 보낸 염장에게 암살되었다. 851년에 완도 청해진의 사람들을 지금의 김제군인 벽골군에 옮겨 살게 명령했다. 이 땅에 사람이 다시 들어와 살았던 것은 고려 공민왕 시대인 1351년이었다. 지금의 완도와 그 외 여러 섬들은 갈래갈래 나뉘어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등의 육지에 속했다. 완도에서 향토신으로 모셔지는 송 정 장군은 삼별초 난 때에 완도에 들어와 한 해 동안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1980년 완도군의 인구는 126,730명으로, 3개 읍, 즉 완도읍, 노화읍, 금일읍과 7개 면, 즉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보길면에 나뉘어 살고 있다. 보길도의 세연정(洗然亭)은 고산 윤선도가 1637년 보길도에 들어와 부용동을 발견했을 때 지은 정자다. 세연정 계원(溪苑)은 상류의 계류가 수입되는 부분과 칠암들과 인공석이 흩어져 있는 계담(溪潭)인 세연지(洗然池)와 세연정, 그리고 세연정 오른쪽의 인공담인 회수담(回水潭)과 동대(東臺)와 서대(西臺), 판석보(板石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세연지에서 다시 1km쯤 부용동으로 오르면 낙서재터(樂書齋址) 건너편 산자락에 동천석실(洞天石室)이 있다. 100m가량 중턱으로 오르면 돌계단과 석문(石門), 석담(石潭), 석천(石泉)이 있다. 석천과 석담 사이에 희황교(羲黃橋)라는 다리가 있어 이 다리를 지나면 돌계단이 나온다.

(2) 강진

강진군의 땅은 고려시대까지 영암과 장흥 땅에 들기도 했다. 남해안 왜구들의 노략질이 잦아지자 조선 태종 17년(1417년)에 광산군에 있던 전라 병영을 강진의 병마절도사영을 옮김으로서 영암 땅에 속했던 도강과 장흥에 속했던 탐진을 합쳐 ‘강진’을 만들었다. 병영은 둘레가 2,820자이고, 높이 18자인 성(城)은 제주도 표류했던 네델란드인 하멜이 구금과 유배생활을 한 곳이다. 다산초당과

만어산 백련사를 가는 오솔길에는 동백꽃이 처연하게 아름답다. 월출산 아래 무위사는 국보 13호인 극락전에는 아미타 삼존불과 후불탱화가 빼어나다.

강진의 구강포(九江浦)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구십포(九十浦)로 기록되어 있다. 전남 3대강의 하나인 탐진강(耽津江)은 보림사에서 장흥 유치면을 거쳐 강진읍내를 적시며 구십포로 흘러든다. 구강포는 탐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오늘의 강진은 도강(道江)과 탐진(耽津) 두 현을 합하여 이루어진 지명이다. 인근 대구면은 고려청자를 배로 실어내던 외길 항로였다. 대구면의 청자 전통은 사라졌어도 옹기 전통으로 이어져 ‘봉황옹기’로 제주도는 물론 여수, 목포, 김해, 마산, 부산까지 팔려나갔다. 이처럼 고려청자와 봉황옹기는 오로지 구강포를 둘러싼 바닷길과 연관으로 설명된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만을 굽어보면서 <경세유표(經世遺表)>속에 원대한 해양방책(海洋方策)을 썼다. 500여 권의 방대한 편질(篇帙)을 남긴 다산의 저술에서 <경세유표>는 단연 압권이다. <경세유표>에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나 어염(魚鹽)에 대한 이득은 모두 사шат집에 돌아가고 국가에는 하나도 득이 없다”고 했다. 다산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 어민과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도시의 처지를 살펴 해양경영론을 제기하며 조정의 해양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유원사(楸遠司)라는 해양총괄기관의 설치를 주장한다. 당시 섬은 오로지 국영목장, 소금생산지 등으로만 효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선 말 1895년에 목장이 22개 처였으니, 경기도의 영종도, 장봉도, 강화도, 주문도, 황해도, 백령도, 전라도의 임자도, 신지도, 진도 같은 섬에 국가경영의 목장이 있었다. 섬 백성은 수탈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다. 국영목장의 목동이나 염전의 간쟁이(鹽夫)로 종사하면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을 간파하였다. 다산은 강진 바닷가 귀양살이에서 바다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북방에지지 않는 외蕃(外蕃)으로서 남방을 중시하는 ‘다도해 정책론’, ‘남방경영론’을 표방하고 있다. 다산은 간척론을 제시해, 간척기술상의 문제와 간척으로 생긴 새 땅의 토지분배를 거론했다. 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동서는 천리도 못되니 바닷가 갈라진 항구 안에 독을 쌓아 개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국방, 경제, 수산의 보루로서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일찍이 제시한 실사구시 정신은 다산의 천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장흥

장흥은 현에 지나지 않거나 영암군이나 보성군에 속했다. 고려 17대 인종 때인 1129년에 인종비인 공예태후 임씨의 고향으로 무신정권하의 허수아비 임금인 임금 셋 곧 의종, 명종, 신종을 비롯해 5왕자와 4공주를 낳아 ‘장흥부’로 크게 되었다. 장흥부는 회주목이 되기도 했으니 왕비 임씨의 고향은 관산을 방촌리이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에 현으로 강등됐다가 조선 태종 때 다시 장흥도호부가 되었다. 또한 동학혁명은 공주 우금치전투에 패한 뒤 전봉준도 체포되고 호남지방에 남

아있던 동학군은 장흥읍 석대들 전투에서 관군에게 패함으로 불씨마저 꺼졌다. 장흥은 제암산(778m)과 천관산(723m)등 명산이 많다. 특히 천관산은 <동국여지승람>에 “몹시 높고 험하여 가끔 흰 연기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서린다.” 고 쓰여 있다. 정상은 다도해의 많은 섬들이 보이고, 부처와 닮은 기암괴석이 많다. 장흥군 관산을 방촌리에는 위백규라는 대단한 실학자 태어났다. 지금 이 마을은 전통마을로 천관산 아래에 있다. 장흥 보림사는 구산선문의 가지산파에 속했는데, 국보 44호인 삼층석탑, 국보 117호인 비로자나불상, 보물로 지정된 동부도, 서부도, 보조선사 창성탑, 보조선사 창성탑비 등이 있다. 최근 탐진강에 목포와 대불공단 등에 용수공급을 위해 탐진댐을 건설했다.

3.1.3 여수에서 완도까지 남해안 다도해문화권의 비전과 발전전략

여수는 남해의 해남반도, 강진만, 장흥반도, 득량만, 고흥반도, 순천만, 여수반도, 광양만, 남해도, 고성반도, 거제도 등으로 연속되는 돌출과 만입은 수려하고 다양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그 한 가운데인 여수반도 끝자락에서 돌산도를 물고 전라선과 고속도로가 순천, 광주, 목포, 남원, 전주, 익산, 대전, 진주, 마산,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대구, 서울로 연결된 교통과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에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다. 2012년 여수EXPO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남해안의 핵심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수와 고흥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를 두 축으로 돌산도, 금오도, 거문도, 백도, 외나로도, 내나로도, 거금도, 소록도, 금당도 등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여수시 삼산면의 거문도와 백도는 자연경관도 수려하며 거문도등대와 영국군 주둔지와 포대 등은 역사·문화자원으로 훌륭하다. 돌산도의 항일암과 나로도의 항공우주기지는 좋은 문화관광자원이다. 여수와 남해도의 가치 ‘남해안 대교’를 조기 착공해 남해의 보물섬인 남해도의 관광자원과 토지용역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 삼천포대교를 거쳐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의 공룡유적은 빼어난 관광자원이다. 또한 ‘한국의 나폴리’ 통영과 매물도, 거제 해금강은 여수EXPO와 연계시킬 수 있는 남해안의 뛰어난 관광자원이다.

3.2 2012 여수EXPO와 남해안 다도해권의 미래 비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12,000km의 해안선과 3,167개의 섬을 가진 나라이며, 지역마다 바다와 관련하여 민요, 동요, 음식, 생활방식 등 수많은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다.

2012년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살아있는 해양과 숨쉬는 연안: 풍부한 자원보전과 미래지향적 활

동(The Living Ocean and Coast: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y)'이다. 여수는 만남의 장소다.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치는 곳으로, 글로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관문이다. 한려수도와 다도해국립공원, 청정해역이 생명산업, 관광산업, 신기술산업의 벨트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구하고 있다. 장보고와 이순신의 바다가 동아시아 관문으로 거듭나고 있는 만남과 교류의 장소다.

개최지역은 전남 여주시 신항지역 일대이며, 개최면적은 약 141만km²(43만평)이고, 개최기간은 19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참가예상국은 80국, 10개 국제기구와 10개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관람객은 795만 명으로, 내국인 752만 명, 외국인 43만 명으로 예상하고, 사업비는 약 1조 6천 69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총 141만 km² 규모로 해상 매립 없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며, 주요시설은 57동의 독립·공동 국가관과 국제기구관, 주제관은 주제관(한국관)과 해양테마관으로, 기업관은 국내 기업관과 다국적기업관 등이며, 이벤트 시설은 상징타워와 아쿠아리움 등이 도입될 것이다. 지원관리시설은 컨퍼런스 센터와 통합관리센터 등이며, 상업시설로는 레스토랑과 유람선터미널 등이며, 편의시설로는 쉼터와 화장실 등이다. 완충녹지구역과 엑스포역, 주차장, 숙박단지 등이다.

사후 활용방안은 박람회 개최구역은 미래형 관광레저port로 개발운영하며, 마리나 시설 및 Fishing Pier(낚시부두), 관광유람선터미널 등은 관광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양과학관(주제관 활용), 해양트레이닝센터(해양 테마관 활용), 수족관, 퍼포먼스 홀 등은 교양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레스토랑, 전망타워(상징타워 활용), 상가, 푸드몰(Food Mall) 및 쇼핑센터(국가관 활용) 등은 상업시설로 활용하며, 고급주거단지(중사자 숙소, 주차장 활용), 고급 및 일반 콘도 등은 고급 주거 및 숙박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적 효과로 Getz의 분석에 따르면, 관광업을 통한 이벤트의 장소마케팅은 첫째, 관광매력물(attractions), 지역의 문화, 교육, 예술스포츠, 경제에 대한 활력소(animators), 셋째, 이미지 메이커, 넷째, 촉매체(catalysts)로서의 효과와 극대성을 주장했다.

3.3 세계박람회(EXPO)의 개최효과

3.3.1 대전 EXPO(1993년 8월 7일-11월 7일)

대전박람회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93일 동안 1,400만 명이 참관해, 개발도상국 최초의 박람회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되었다. 대덕연구단지에 901km² 부지에

공기업관, 주제관 등은 인근의 국립과학관과 연결해 과학공원으로 활용하고, 임시시설은 유희시설 등을 민자로 유치했다.

3.3.2 캐나다의 몬트리올 EXPO(1967년 6개국 참가)

몬트리올 박람회는 세인트로렌스 강에 인공섬을 조성해 850여개의 건물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 놀이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1968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1년 앞서 5,000만 명의 참관객을 동원했고, 놀이공원은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 유발과 새로 개발한 섬의 부지는 현재 Formula 1 레이싱의 경기장으로 활용해 자동차산업과 서비스산업에 크게 기여한다.

3.3.3 일본의 오사카 EXPO(1970년 개최)

오사카 박람회는 ‘Progress and Harmony for Humankind(진보와 인류의 조화)’라는 주제로 77개국 참가로 6,400만 명의 관람객에 14억 프랑의 수입을 올렸다. 아시아 최초의 박람회로 새로운 고속도로, 신도심 형성, 철도, 지하철, 신간선 등의 개발로 공간구조의 개편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효과, 도시생활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과학기술의 업적으로 달 착륙, 콩코드, 자기부상열차, 레이저 기술 등이 소개되어 과학기술의 발전계기로 활용되었다.

3.3.4 일본의 쓰쿠바 EXPO(1985년 3월 17-9월 16일)

쓰쿠바 박람회는 ‘주거와 주변 환경 - 가정에 거주하는 인간을 위한 과학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184일 동안 2,000만 명 이상이 관람했고, ‘과학도시 쓰쿠바’로 국제적 과학연구 센터로 도시전환을 했다.

3.3.5 스페인의 세비아 EXPO(1992년 개최)

'92 세비아 박람회는 ‘발견의 시대(The Age of Discovery)’라는 주제로 컬럼버스 신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되어, 150개국 참가에 4,000만 명이 관람했다. 스페인고속철도(AVE)는 1992년 마드리드-코르도바-세비아 간 471km를 개통해 세비아 EXPO에 SOC를 확충하고, 전기통신, 호텔, 금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안달루시아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SOC투자를 함으로써 발전기반을 구축했다.

3.3.6 독일의 하노버 EXPO(2000년 6월 1일-10월 31일까지 5개월간)

하노버 박람회는 ‘인간, 자연, 기술’의 주제로 1,641km²의 부지에 1,81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독일통일 10주년 기념과 21세기를 맞이하는 밀레니엄 사업이기도 했다. 참가국 국가관과 주최국

테마관, 국제기구관 등 크게 3개로 나누고, 170개국에 참가해, 각 참가국은 건강, 영양, 주거, 일, 환경, 개발, 정보화 등 부 주제 가운데, 특정 주제를 선정해 자국의 비전과 구체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박람회 테마관은 주최국에서 인간, 환경, 기본적인 욕구, 영양, 건강, 에너지, 교통, 지식, 비전의 지구, 21세기 등 11개 테마별로 인류가 직면한 사회적, 문화적, 생태학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광자원 활용효과로서 박람회장의 부지와 전시 건물은 박람회가 종료된 후 상업시설, 전시장, 컨벤션센터 등으로 100% 활용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효과로서 새로운 교통통신수단을 건설했으며, 특히 교통 면에서 종합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에도 홍보효과가 대단하다. 전시 및 박람회의 유명 도시로 인정되고 있다. 하노버는 연중 전시 및 박람회를 개최하여 하노버의 주 소득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3.3.7 일본의 아이치 현 EXPO(2005년 3월25일- 9월 25일)

아이치 만국박람회는 ‘자연의 예지(Nature’s Wisdom)’라는 주제로 185일간 관람객 2,205만 명이다. 아이치현의 현청은 나고야 시에 있고, 나고야 권역은 인구1,113만 명으로, 도요다 시에는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도요다자동차가 있다. 2005년 아이치 만국박람회의 개최를 기해 일본 제3위 공항인 주부(中部)공항이 이세만 앞바다에 인공섬 위에 건설했다. 주부공항은 도요다자동차가 투자자금의 절반을 출자한 일본 첫 민간항공으로 도요다자동차가 도요다식 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고야권역은 자동차 외에 항공우주산업, 공작기계, 섬유 등의 생산거점이며, 목재가공업과 도자기공업 등이 발달했다. 또한 미쓰비시 중공업, 소니, 샤프, 산요, 아사히맥주 등의 공장이 있다.

아이치 EXPO에서는 최신기술과 영상기술을 구사해 환경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미래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래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는 로봇과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IT 등 최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숲 속의 자연학교를 열고, 인터프리터와 함께하는 세토 섬의 숲속여행에 많은 참가를 했다. 세계 120개국, 4개 국제기관이 참가해 자연과 환경보호의 소중함과 이를 위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등을 소개했다[12].

3.4 2012 여수 EXPO 개최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여수EXPO가 개최되면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경제적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는 세계박람회장 건설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관광소비액의 증대로 인한 파급효과, 기타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나눌 수 있다. 박람회 개최를 위한 건설비, 운영비, 관련 공공사업비의 지

출, 입장자의 소비 및 관련민간설비투자 등은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는 전남지역에 66.5%, 경남 3.5%, 광주 2.5% 등이며, 고용유발효과는 전남지역 61.5%, 경남 지역은 4.0% 등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남지역이 부가가치효과가 8,893억원, 경남은 1,233억원이다. 또한 관광소비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남지역에 생산유발효과 5,822억원, 소득유발효과 2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20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913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6][13].

비경제적인 파급효과로는 첫째, 도시개발효과로, 여수EXPO와 관련하여 투자된 도로, 철도, 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여수의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게 된다. 둘째, 환경개선 효과로, 박람회 개최함으로써 행사 후, 교육문화시설, 관광시설, 상업시설, 숙박단지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도시개발의 동기부여로, 해양관광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다. 즉 마린나 시설 및 Fishing Pier, 관광유람선터미널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제전시 및 컨벤션센터로 활용된다. 넷째, 해양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전남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2면에 접해있어, 우리나라 해안연장선의 55%를 보유하고, 1,968개의 유인도가 있다. 다섯째, 여수는 남해군, 하동군, 사천시, 진주시 등과 연계해야 명실 공히 남해안의 중심성과 지역균형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여수와 남해군 서면간의 현수교가 필요하고, 이순신 장군 역사프로젝트가 가능하다[14][15].

4. 남해안 프로젝트와 남해안 축제의 협력방안

4.1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문화는 남해안 발전의 근원

남해안지역의 문화자원은 우리나라의 남도문화의 정수와 가장 한국적인 자연풍토이다. 넓은 들판, 남해의 변화무쌍한 해안과 섬들,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우뚝한 지리산과 낙동강과 섬진강, 영산강의 유장한 강물, 판소리, 남도들노래, 어부의 노래, 바다와의 친밀성, 불교문화와 유교문화의 본향, 항구도시 부산과 마산, 통영, 울산, 포항, 여수, 목포, 군산의 선창가의 비릿한 냄새는 남도문화의 풍성한 자궁이요 보고다.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3대 종찰, 선암사, 범어사, 화엄사, 쌍계사, 대둔사, 실상사, 운주사, 보림사, 포충사 등 무수한 사찰은 불교문화의 본향임을 말해준다.

함양군 안의면의 농월정, 군자정, 거연정, 동호정과 거창군 위천면의 수승대와 구연서원, 사선대 등은 야외공연 극치인 ‘거창국제연극제’의 멋진 풍광인 것이다. 담양군의 창평에 ‘소쇄원’, 면양정, 송강정, 명옥헌 등 무수한 정자들은 가사문학의 꽃을 피웠다. 윤선도는 보길도에 세연정 등 부용동

원리를 가꾸었고, 다산은 강진에 다산초당을, 정암 조광조의 제자 양산보는 담양 창평에 소쇄원을 가꾸었다. 장흥 관산의 ‘방촌마을’, 보성의 ‘강골마을’ 전주의 ‘한옥마을’은 남도의 숨겨진 보물이다 [5][6].

4.2 남해안의 자연과 문화자원의 차별성과 전략

남해안 한려수도 문화자원의 특징은 남해안 지역문화와 산업자원의 글로벌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영남권의 허브공항이 시급하고, 부산과 경주의 호텔과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국제회의장을 갖춘 전시-컨벤션산업과 연계되어야 시너지효과가 크다.

반면에 다도해의 문화자원의 특징은 ‘진도 영등축제’, 보성의 ‘보성다향제’와 ‘보성소리축제’, 남원의 ‘춘향제’, 강진의 ‘강진청자문화제’처럼 한국의 전통문화가 주종을 이룬다. 호텔의 신축 등 대규모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 보성의 강골마을, 장흥의 방촌마을 등 민속마을을 홈스테이의 거점지역으로 판소리와 술과 떡과 차와 시와 서화를 포함하는 가장 한국적인 관광의 매력과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3 남해안축제의 협력방안

4.3.1 한려수도와 다도해의 남해안축제 - 크루즈와 해양스포츠와 어업과 문화산업의 결합 -

다도해지역의 해안축제로는 남해안의 변화무쌍한 굴곡과 섬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진도의 ‘진도 영등축제’, 해남의 ‘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 완도의 ‘장보고축제’, 여수의 ‘항일암일축제’, 영광의 ‘법성포단오제’, 목포의 ‘유달산꽃축제’, 신안군의 ‘임자모래축제’가 있다.

한려수도지역의 해안축제로는 부산의 ‘자갈치축제’, ‘해맞이부산축제’, ‘부산바다축제’, ‘다대포해넘이축제’, ‘송도바다축제’,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 ‘광안리어방축제’, ‘기장멀치축제’, ‘가덕송어축제’, 진해의 ‘진해군항제’, 마산의 ‘마산어시장축제’, 통영의 ‘한산대첩축제’, 거제의 ‘옥포대첩축제’, 고성 of ‘고성공룡나라축제’, 사천의 ‘삼천포항팔포전어축제’, 남해의 ‘이충무공노량해전승첩제’ 등이 있다.

부산-마산-통영-삼천포-여수-완도-목포를 연결하는 왕복 크루즈와 순환 정기관광유람선의 축제관광과 연계시키고 시너지효과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수반도와 남해도의 관광자원의 통합운영은 바람직하다. 진남관의 여수좌수영과 노량해전의 유적지의 연계와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의 역사적 장소를 축제무대화하고, 상주의 해수욕장과 금산을 돌산도의 항일암과 연결하여 일출과 일

물의 명소로 축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16][17].

서해안 다도해의 목포거점으로 홍도, 흑산도, 가거도, 진도, 완도, 보길도의 관광자원을 축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남해안 다도해를 여수거점으로 거문도, 백도, 나로도, 돌산도, 남해도, 여수반도와 고흥반도의 관광자원과 축제를 연계시킨다. 한려수도의 통영거점으로 거제도, 한산도, 소매물도, 해금강, 사랑도, 창선도, 남해도, 고성반도의 관광자원을 축제와 연계시켜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부산을 거점으로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송정의 해수욕장과 거제도, 가덕도, 절영도, 오륙도 등의 해양관광자원과 내륙의 경주, 해인사, 통도사 등의 관광자원을 축제와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4.3.2 통영의 ‘한산대첩축제’와 ‘통영국제음악제’

통영의 ‘한산대첩축제’와 ‘통영나전칠기축제’는 통합하여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축제’로 개칭하여 세병관 등 통제영과 12공방을 복원시켜 충열사, 한산도의 제송당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수군본부로서의 위상과 나전칠기 등 공예품과 이순신과 임진왜란의 수군승리의 교두보로 통합적인 축제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의 ‘통영국제음악제’도 ‘통영 윤이상음악제’로 개칭해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영 앞바다의 아름다움과 박경리, 유치환, 유치진, 김상옥, 전혁림 등 여러 장르의 기라성 같은 예술인들의 축제와 통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제도, 해금강, 외도, 소매물도, 한산도, 미륵도, 옥지도, 사랑도 남해도 등의 아름다운 섬과 상족암을 비롯한 고성반도의 무수한 공룡서식지를 연계시켜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16].

매년 고성에서 개최되는 ‘고성공룡나라축제’는 주변의 통영, 거제도, 남해도, 사천, 고성반도와 한려수도의 무수한 아름다운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 환상적인 축제의 무대가 될 가능성 매우 높은 곳이다.

4.3.3 진도의 ‘진도 영등축제’

신비의 바닷길이란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2.8km의 바다가 매월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로 해저의 사구가 깊을 때는 40여m 폭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일명 ‘영등축제’인 이 축제는 본래 매년 음력 3월 ‘영등살’에 바닷길이 열리는 날에 뿔치바위를 제(祭)터로 삼아 젊은이들이 벌이는 ‘굿판’이었다. 제(祭)를 지내고 난 다음 바닷물이 열리는 시각까지 마을사람들은 강강술래를 하며 노는 싸움판, 노래판, 술판이 벌어져 난장(亂場)이 되어 흥겨운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게 된 것이 영등제였다. 그 당시 서로 만나서 즐겁게 놀며 해물채취도 했던 ‘영등제’굿판 순서는 <모이기>-<제모시기>-<놀이판>-<바닷길>-<만나기>-<해산물채취>였다.

진도는 예로부터 시(詩)-서(書)-화(畫)로 유명한 예향(藝鄕)이다. ‘진도아리랑’의 본산으로 ‘강강술레’, ‘남도들노래’, ‘남도잡가’, ‘진도만가’, ‘진도다시래기’, ‘진도씻김굿’등 어느 장르에도 진도에서는 소리가 빠지지 않는다. 또한 너울너울 춤사위가 기가 막힌 ‘진도북놀이’는 소리와 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진도의 민속공연은 진도만의 특유의 전통 예술문화이다. 진도의 뛰어난 민속문화예술은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예능보유자’를 다양한 장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도의 축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민속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영등축제’로 불렸던 축제명을 ‘신비의 바닷길 3월 축제’, ‘5월 축제’, ‘7월 축제’로 명칭을 바꾸어 각각 색다른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여 성공하였다.

4.3.4 섬진강축제(하동, 광양, 구례, 곡성)

섬진강의 하류 2도 4군은 하동의 송림과 악양면 평사리의 최참판댁과 토지의 무대, 화개천의 화개벚꽃터널, 화개장터, 야생차밭, 쌍계사와 불일폭포, 칠불사와 의신계곡, 청학동과 삼선궁, 하동재첩, 하동배 등이 유명하다.

광양군은 매화축제, 백운산 고로쇠, 광양향과 광양제철 등이, 구례군은 노고단과 만복대와 산수유, 운조루, 화엄사의 각황전과 석등과 4사자 3층 석탑, 천은사, 연곡사의 동부도와 북부도 등이, 곡성군은 동악산과 도림사계곡, 동리산과 태안사,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압록유원지 등이 있다.

지리산과 백운산과 섬진강이 빚어내는 수려한 강변과 백사장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영남과 호남이 어울리는 축제의 최적인 것이다. 화개장터가 중심축이 되어 광양의 매화축제와 백운산약수제와 광양전어축제, 구례의 산수유꽃축제와 파아골단풍축제, 곡성의 심청축제와 명장목화축제, 하동의 토지문학제, 야생차축제, 화개장터벚꽃축제, 개천대제, 참송어축제 등이 공동으로 테마별, 계절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섬진강의 영호남화합축제가 바람직하다.

4.3.5 지리산 축제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의 3개도 5개군을 중심으로 지리산의 자연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1개월간의 연속된 축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전북 남원시는 춘향전과 흥보전, 판소리의 동편제, 실상사와 만복사지와 광한루 등의 문화자원이 풍부하다.

전남 구례군은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운조루 등 문화자원과 산동면 산수유축제, 지리산온천 피아골 단풍과 화엄사계곡의 풍광, 섬진강 등의 자연조건이 매우 좋다.

경남의 하동군은 쌍계사와 진감선사비, 칠불사, 청학동, 청학동삼선궁, 평사리 토지문학관 등 문

화자원과 삼신봉과 불일폭포, 화개벚꽃길, 하동송림, 섬진강백사장 등 자연풍광은 매우 뛰어나다.

산청군은 지리산 천왕봉과 웅석봉, 황매산 등과 대원사계곡, 중산리계곡, 거림계곡, 내대계곡 등 자연조건은 매우 좋다. 구형왕릉, 대원사, 법계사, 단속사지, 남명 조식의 산천재와 덕천서원, 문익점의 목화시배지, 드라마 ‘허준’의 촬영지 등의 문화자원도 풍부하다.

함양군은 칠선계곡의 벽송사와 서암, 영원사, 용유담, 고운 최치원의 학사루와 상림숲, 남덕유산과 기백산, 황석산의 황석산성과 안의 심진동의 용추폭포와 장수사지, 안의 화림동의 농월정, 군자정, 거연정, 동호정, 지곡면의 정여창고택, 남계서원과 청계서원 등 경상우도의 양반마을로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많다.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지리산의 영호남 3개 도의 지리산공동축제는 시너지효과와 많은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다.

5. 나오면서

남해안 SUN BELT 프로젝트는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 등의 목표 중심의 서남해안 개발전략과, 부산신항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과 광양경제자유구역 등의 허브항만개발전략과, 부산북항 재개발 전략, 여수EXPO 개최 전략, 통영-거제의 조선산업과 해양-관광개발, 진주-사천의 항공산업과 관광산업개발, 창원-마산의 기계산업과 중공업과 환경·문화도시 전략 등 이미 많은 발전구상과 전략이 난무하고 있다. 과잉개발과 중복 개발, 상호 연계성을 상실한 편중과 무모할 정도의 난무하는 개발계획과 황당한 과잉 비전 제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하고 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발전구상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광대한 중국대륙의 남쪽을 생각한다면, 목표의 지정학적 위치는 21세기 황해시대에 매우 절묘하다. 현실적으로 인근 신안군을 중심으로 한 흑산도, 가거도, 우이도, 비금도, 장산도 등의 서남해 도서(島嶼),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뱃길의 거점이기도 하다. 비록 영산강 뱃길은 끊겼지만, 인근 섬과 섬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목표항이니만치 해양도시로서의 100여 년의 역사를 지켜왔고, 남약신도시의 전남도청과 무안국제공항과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는 목표의 발전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치밀한 계획과 정교한 실천으로 서남해의 백년대계를 성취해야 한다[18][19].

여수는 2012년의 여수EXPO를 유치해 지역발전은 물론 남해안 자원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여수와 고흥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를 두 축으로 돌산도, 금오도, 거문도, 백도, 외나로도, 내나로도, 거금도, 소록도, 금당도 등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여수시 삼산면의 거문도와 백도는 자연경관도 수려하며 거문도등대와 영국군 주둔지와 포대 등은 역사·문화자원으로 훌륭하

다. 돌산도의 향일암과 나로도의 항공우주기지는 좋은 문화관광자원이다. 여수와 남해도의 가칭 ‘남해안 대교’를 조기 착공해 남해의 보물섬인 남해도의 관광자원과 토지용역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 삼천포대교를 거쳐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의 공룡유적은 빼어난 관광자원이다. 또한 ‘한국의 나폴리’ 통영과 매물도, 거제 해금강은 여수EXPO와 연계시킬 수 있는 남해안의 뛰어난 관광자원이다.

한려수도와 다도해의 남해안축제는 크루즈와 해양스포츠와 어업과 문화산업이 결합하여, 부산-마산-통영-삼천포-여수-완도-목포를 연결하는 왕복 크루즈와 순환 정기관광유람선의 축제관광과 연계시키고 시너지효과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수반도와 남해도의 관광자원의 통합운영은 바람직하다. 진남관의 여수좌수영과 노량해전의 유적지의 연계와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의 역사적 장소를 축제무대화하고, 상주의 해수욕장과 금산을 돌산도의 향일암과 연결하여 일출과 일몰의 명소로 축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낙동강 하구권과 경남중부권과 광주와 무등산권을 이번에 제대로 다루지 못해 양해를 바랍니다. 후속 보충 논문에 연구와 분석을 할 것입니다. 한려수도와 다도해의 남해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공간과 연구범위를 택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많은 보충이 요구됩니다.

References

- [1] Gimhyeongyun, South Korea's discovery / Gyeongsangnam-do. Seoul: Deep-Rooted Tree, (1983).
- [2] Gimhyeongyun, South Korea's discovery / Jeollanam-do. Seoul: Deep-Rooted Tree, (1983).
- [3] S. G. An, "The southern maritime era of cultural policy and cooperation", The 4th Symposium on the south coast development, (2007).
- [4] S. Jo, "The impact of 2012 Yeo-su World Expo on the local economy", '2012 Yeosu EXPO' Symposium on the meaning, (2007).
- [5] Juganghyeon, 1 South Sea remission, Seoul: Woongjin Knowledge House, (2006).
- [6] M. Heo, "Archipelago globalization project for South Coast Ocean utilizing cultural resources", The 4th Symposium on the south coast development, (2007).
- [7] J. -h. Woo, "Searching for the Nam River and Jinjuseong", 2nd Land Journey, Age 21 lives Nakdong, Land and Environmental Laboratory, (2007).
- [8] S. -k. Ko, "Historical space culture of modern city Mok-po",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4).
- [9] Juganghyeon, 2 western sea remission, Seoul: Woongjin Knowledge House, (2006).
- [10] H. Jeon, "The Influence of 2012 Yeo-su World Expo on national development", 2012 Yeosu EXPO 'Symposium on the meaning, (2007).
- [11] J. -i. Kim, *et al.*, 2000 Lee Road Coast Province, Guangzhou Chonnam Development Institute, Seoul: Book Publishing Castle, (2002).
- [12] Takeo Kondo, Yijungwoo Translation, 21st Century Marine Development, Seoul: gimundang, (1997).
- [13] M. Heo, The meaning which 2012 Yeo-su World Expo gives to the Expo development and human earth environment, (2007).
- [14] J. Kim, "Changes and marine ecology of the fishing community", Seoul: minsokwon, (2004).
- [15] D. J. Sin, "Marine Tourism Development", Seoul: Daewangsa, (2005).
- [16] J. -h. Woo, "Plan North Port Redevelopment of the composition of the hydrophilic space, We do this in Busan Create, Making possible the continuation of civil subjects Busan", Busan gyeongsilryeon, (2006).
- [17] J. -h. Woo, "The development Strategy of Busan New Port and Busan North Port", Bright Future Civic Forum, The fourth seminar, (2007).
- [18] Yigyeongmo, "Understanding of the cruise industry", Seoul: Great Company, (2004).
- [19] S. Jeong, *et al.*, "Ron marine tourism", Seoul: Great Company, (2004).

